업(業)의 끌림 멈추고 진리의 길에 들다

현불논단



금해 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요즘 우리 절 관음선원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선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여 명의 대중이 모여 정진하는데, 그 가운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의를 불태우는 70대 노보살 님이 가장 으뜸이다. 묵묵히 정진하는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뜨거운 여름, 나태해지기 쉬운 대중들에게 모범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우리는 업(業)에 익숙하고 육근(六根)이 즐거운 일은 누가 권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쫓아다닌다. 반면에 마음 다스리는 공부나 수행, 기도처럼 중생의 업과 반대로 가는 일은 생소하기만 하다. 그렇기에 불교 공부는 즐기기도 어렵고 익숙해지기까지는 몇 배의 노력이 드니 포기하기 쉽다.

'수행'의 복 중의 하나는 자신의 업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이다. 멀리해야 할 '그릇된 것'과 가까이해야 할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행이란 나의 업을 마주하는 일이며, 무거운 중생의 업장(業障)을 깨달아 깊이 참회하며 통곡하게 만들고, 청정한 나를 찾아가는 거룩한 과정이기도 하다. 수행하지 않는 이는 본능이 이끄는 쾌락과 편안함을 따라 덧없이 한 생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업의 흐름을 거슬러 복덕을 닦는 이는 이생에서도 대중의 존경을 받고, 다음 생에는 더욱 빛나는 삶을 맞이하게 된다.

오래전 뇌성마비를 극복한 화가 한혜경 씨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갓 돌이 지나 시련을 맞이하고 몸이 성치 않았던 그는 성철 스님을 찾아

관음선원 노보살의 정진, 대중의 모범 돼
'업 참회' 수행, 청정한 나 찾아가는 과정
철저한 수행 통해 진리의 길로 들어서야

가 매일 삼천 배를 올리며 절망을 극복했다. 이후 그는 히말라야 등반까지 해내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말투와 사고방식, 육체까지 지배하는 오랜 숙업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참맛이다. 사량분별의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로 이끄는 작업이 얼마나 가슴 뛰고 기쁜 일인지를 알게 되면,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와 행복으로 변한다.

대혜종고(大慧宗杲) 스님은 〈서장(書狀)〉에서 "설은 것은 익게 하고, 익은 것은 설게 하라(生處放教熟 熟處放教生)"고 하셨다. 익숙한 중생의 습기는 멀리하고, 생소한 수행은 자꾸 닦아 익숙하게 만들라는 말씀이다. 학인 시절 마음에 새긴 이 한 구절은 내게 큰 경책이자 등불이었다. '진리를 향한 공부가 내 업에 익숙하지 않아,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구나'라고 자각하면, 업에 패배하지 않기 위해 계속 정진하게 된다. 반대로 순간의 즐거움에 마음이 솔깃해질 때면, '아직도 중생의 업에 물들어 끌려다니고 있구나' 하고 깨달아 즉시 멈추게 되는 것이다.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인류의 평균 수명은 최대 50세를 넘지 못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백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관점을 바꾸어 보면, 우리는 복이 많아서 현생에서 자신의 업을 닦고 정진할 시간을 두 배나 더 얻은 셈이다. 그러니 '나이와 시절이 맞지 않다'며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를 속박하고 있는 분별심, 그릇된 견해, 그리고 육근이 요구하는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철저한 수행을 통해 자신의 업을 통찰하고 바꾸며 진리의 길로 당당히 들어서야 한다. 가장 힘들고 생소한 일을 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수행 정진하는 소박한 대중들과 함께, 거룩한 진리의 길에 있음을 서로 격려할 수 있으니 감사할 뿐이다.

AI 담론과 연기론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필자는 아직 AI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AI에 관한 책이나 논문은 꽤 읽어 왔다. 마치 여행을 즐겨하지 않은 사람이 여행 관련 책을 탐독하는 것과 비슷한 사례리라. AI에 대한 문자를 섭력하면서 나도 모르게 공포감이 스며든 지도 모르겠다. AI가 인간을 지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물릴 정도로 풍미돼 왔다. 그러나 나의 공포는 AI가 지구 중생의 삶의 터전인 자연을 파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에 있다. AI는 클라우드(구름) 속에 떠 있는 추상적 지식이 아니라 엄청난 광물과 에너지를 소비하며 지구 생태계를 변형시키는 물질적 산업이다. 전자기기의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채굴 과정에서 채굴물의 99.8%가 폐기물로 버려진다고 한다. 내몽골 바오티우에는 1억8000톤 이상의 부산물로 죽음의 검은 호수가 형성됐다고 한다. 비슷한 사례는 계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 AI에 대한 논쟁의 태반은 기술적 전망과 인간의 역할 변화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논의의 공통된 전제는 인간과 기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자연'은 빠져 있다. 근대 문명의 형성은 인간/자연, 주체/객체, 문명/야생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체계에서 나온 것으로 인간은 자연을 지배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 왔다. 따라서 기술은 인간이 자연을 착취

AI, 자연 착취 생태계 변형 위험에도
인간-자연 잇는 새로운 소통 길 열어
지구 살리는 지속가능한 관계 설계도

하는 도구가 되어 왔고, 오늘날 AI 산업 역시 이 논리를 집요하게 따르고 있다.

최근 '인간 대 AI'의 담론 틀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인간-AI-자연'의 삼각관계로 확장하고자 하는 경향이 등장하고 있다. 이 담론은 AI가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AI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와 함께 AI는 자연을 착취하는 도구가 될 위험을 넘어,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희망이 구체적으로 연구되고 실천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AI는 자연의 복잡한 신호를 해석하고,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시공간적 생태 패턴을 감지하며, 개인의 일상적 경험을 지구적 맥락과 연결시킬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AI는 인간이 자연을 경험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천 사례로 꽃가루받이 곤충들의 행동 패턴과 생태적 필요를 분석해 곤충 친화적 정원을 조성하기도 하고, 누에를 죽이지 않고도 아름다운 실크를 뽑아내기도 한다. 참으로 신기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AI는 우리가 자연을 경험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AI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새로운 소통의 길을 열어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AI 시대에 인간의 역할은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다른 존재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윤리적 방향을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관계를 설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연기론적 담론이다. 이러한 인간-AI-자연의 연기론적인 관계망에서 지구 중생을 살리는 자비 실천의 길이 열릴 것이다. 붓다의 지혜가 새삼 가슴에 다가온다.

社 說

광복의 완성은 평화와 화합에 있다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았다. 광복은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다. 그렇기에 광복절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되새기고 앞으로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성찰하는 날이어야 한다.

지난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불교계는 어느 때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각 종단과 사찰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순국선열과 불교계 독립운동가들의 넋을 기렸다. 학술대회와 전시, 자료 발굴 등을 통해 그동안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던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항일운동사를 복원하는 노력도 이어졌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곧 불교가 역사 속에서 감당했던 사회적 책임을 되돌아보는 일이기도 했다.

불교계, 독립정신 되새기며 화합의 길 모색
'진정한 광복'은 한반도 평화·국민통합 노력

올해도 그 뜻은 이어지고 있다. 진관사는 광복절을 앞두고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청해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 백범 김구 선생이 젊은 시절 출가 수행했던 공주 마곡사도 선생의 삶과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는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올해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해다. 이처럼 불교계가 광복절을 기리는 것은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 평화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던 선조들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다.

평화재단이 실시한 '광복 81주년 국민의식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광복을 어느 정도 이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1%가 61점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 10명 중 7명(69.1%)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했다. 지난 81년 동안의 성취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분명했다. 진정한 광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양극화 해소 및 국민통합'을 꼽은 응답이 29.1%로 가장 많았다. 일제강점기 과거사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 역시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이는 광복이 국권을 회복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나라를 되찾은 뒤에도 사회 구성원이 서로 반목·갈등한다면, 남과 북이 대립하고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꿈꾸었던 광복은 아직 완성됐다고 말하기 어렵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논평을 통해 "평화와 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남북관계가 오랜 기간 경색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일수록 평화를 향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광복은 우리에게 자유를 되찾아준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지켜내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몫이다. 양극화를 줄이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모두 광복의 정신을 오늘에 완성하는 과정이다.

불교계도 독립을 위해 온 삶을 바친 선열들의 뜻을 이어, 평화와 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8월 19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8월 19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8월 19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